조선상인

누이에게연락이왔다

처자에게마음이가시지않았다고한다

벌써 만3천냥을치뤄준지오래다

나는기방출입도하지않는다

이곳순창에자리잡은지도오래다

약방도정리하고탈곡장만가지고있다

최대감댁에도인사한지오래다

지금이세종대왕의시대다

임금께서잘하시니궁민이풍요로운것은말할것도없다

탈곡장에가보기로했다

맡아놓은관리장이잘운영된다고는한다

탈곡한양이꽤나많았다

봇짐꾼들에게한양으로다올려보내라고일러뒀다

누이에게는만냥을보냈다

"잘지내는가?"

"오셨습니까요"

"그냥얼굴이나보러왔네"

"자네월급은괜찮은가?"

"탈곡장이잘되니걱정거리가없습니다요"

"그럼됬네"

"나는가보겠네"

나는곧장운영하던약방으로갔다

약을한첩짓고마을로들어섰다

눈앞에내집이보인다

오늘볼일은다봤다

방에들어서약봉지를두고누웠다

해가지려면한뼘은남았지만이부자리를깔고누웠다

바로잠이들었다

아침녘에일어나한약을다렸다

허기를한약으로채웠다

처자와헤어지고마음고생을했다

점심때가되서기방에서연락이왔다

한번와보라는것이다

예의를갖춰돌려보냈다

나는양반신분이아니다

중인이다

공부를하는중인도있건만나는장사를하기로했다

양반들이보는서재는다읽어봤다

부친도중인이셨다

처자의고충에여간고생하신것이아니다

처자가고집이세고욕심은없었다

그래서부친께받은재산에서 만3천냥을준것이다

부친의재산은누이가다가지고있다

나나도만냥은부리니돈걱정은없다

처자가마음이가시지않는다니한양에가보기로했다

몇년살고여러해를한번도않봤다

내려와있는봇짐꾼들과올라가기로했다

기왕가보기로한것을내일로재촉하였다

봇짐을준비해서메고해가뜨자마자출발했다

문경에서잠시쉬고한양으로바로갔다

누이가일러둔한양의아는주막으로갔다

내가책을다떼고처음툇마루일꾼들을만난곳이다

가보니처자가와있다

보자마자방으로불렀다

연유를물으니다시집안에들어올수있냐는것이다

나는내세니알았다고하였다

처자는봇짐도챙겨온듯했다

하는수없이대장간을잊고봇짐꾼들과처자를데리고왔다

집은큰한채와건너방도있으니봇짐을내려놓고약방으로데려가서맥을짚어맞는약을짓었다

데리고와약을달여먹이고재웠다

언뜻보니세던고집이많이무뎌진것같다

같이내려온봇짐꾼들이누이도마음을놓았다고전해주었다

처자와또무엇을하겠는가?

자식도없이헤어졌으니자식농사나잘짓어야겠다는생각을했다

탈곡장이문을닫았다

5만냥을받고팔았다

소를키우기로했다

먼저20마리를샀다

관리인은탈곡장관리인을그대로쓰기로했다

2만냥을누이에게보내고첫째얘와둘째얘를낳았다

둘다사내다

처자뱃속에는약방에가보니얘가셋이나들어있다고한다

셋다사내라니내년이되기전에사내만다섯이다

처자와상의해셋만더낫기로했다

다낫고나니다사내다

8명이사내인것이다

나는얘들은누이와처자에게맡기고한양에가있을까한다

누이는사람을보내왔다

유모라고한명을데리고왔다

아낙밖에없으니큰사내를데리고왔다

그사내도아는사내둘을데리고왔다

큰사랑채를내주고잘먹여기거하게했다

이정도면자식키우는데는문제가없겠다고생각이들었다

나도같이다니는봇짐꾼들이있으니재촉하여한양주막으로갔다

가보니툇마루일꾼들은없었다

봇짐꾼들과짐을풀고밥상을따로받아먹고누웠다

다음날해가밝아대장간에가봤다

생각보다바빠보이지는않았다

새로운것이있냐고물으니없다고한다

조금더물어보니프랑스라는곳에서조선으로온다고들었다고한다

무역을한다는상인같기도하고마약이라는것과대포라는무기를대려고한다는것으로들었다고한다

내생각에는큰돈이되겠지만내가상대할수준이아니라는직감을했다

그래도궁금한터라소식을듣고주막으로돌아와자리잡고있는툇마루일꾼들과막걸리를한사발들이켰다

내가서둘러오느라봇짐꾼들이보인다

나는자리를피해자리를내어주고내방으로왔다

생각을좀해봐야겠다는생각을했다

긴장을좀했다

대포와마약이라면멀지않은중국이생각났다

내가해본것이라고는약방과탈곡장그리고지금키우는소수십마리가다다

몰래들여온것이라대포한개만들일수있나생각해보기로했다

마약은돈이되도하지않기로했다

몇일이지나나가봤다

벌써마약은다팔리고대폰한대정도구할수있다고한다

3천500냥을주고들여왔다

아이들이크는고향의최대감에뵈드릴것이라또긴장감이들었다

봇짐을바로싸서봇짐꾼들과작은수레에실어내려갔다

작은수레야대장간에서얻어온것이다

다음날아이들과장정들을들여다보고최대감댁을찾았다

최대감은놀라시는기색이없었다

알고있으니가지고가보라는말씀을하셨다

무엇이어떻게되어가는것인지알수가없었다

중국과프랑스간의문제인지태평성대의세종께서이끄시는조선이무슨문제가있는것인지알길이없었다

집에들어선첫째아들이벌써키가훌쩍이었다

유모도고생이었지만장정들이집을잘지켜주었다

더는마음이쓰여키우는소사육장으로갔다

관리인과얘기를시작했다

나랏일은나랏님들께맡기고나는소만잘키워내기로했다

벌써60마리가넘는다고한다

키워내는대로한양으로만올리라고일러뒀으니더붙일말은없었다

"잘지내는가?"

"식사는하셨는지요?"

"그러하네"

"소들은어떤가?"

"병든소없이잘크고있습니다"

"그러면되었네"

더는사적인얘기를할것이없었다

집에와보니다큰자식들이제기차기를하고있었다

장정들이셋이나있으니도둑하나없다고한다

오랫만에처자를불렀다

"잘지내는가?"

눈물을훔치는처자에게더는할말이없었다

"내어깨와다리를주물러주겠네"

처자는몸을돌아앉았다

내가보기에는정을한껏담아푸는모양이다

"기력이쇠하면약방으로가시게"

"사내들도여덟이나되니큰걱정은없을걸세"

오랫동안오랜만에함께있었다

오늘밤은처자와보낼생각이다

나는마음깊이품어주었다

한없이우는처자에말없이재웠다

나는빈방에혼자일어났다

처자는밥상을들여왔다

밥을먹고수줍게웃는처자를보고한수저들었다

지금하는일은소키우는일밖에없는지라또소사육장에나가보았다

더는한양에갈일이있을까모르겠다

새로넘긴탈곡장주인을보고다시집에있는처자를보러갔다

아직해가중천이다

아이들은막내와넷째만두고다들큰형밑에서낮잠들이들었다

막내외넷째는큰사랑방에한식구가된장정들과무슨놀이를하고있다

방에들어가보니처자는앉아있었다

기침소리를않내도처자는내걸음이라도아는모양이다

할말도없이처자는웃는얼굴이다

나는속으로처자에게감사함을느꼈다

생각해보니기방사람은발길을끊은지오래다

나도나이가서른에고개를넘는다

내어머니얘기를하자면길다

부친이가시고바로가셨다

평소에말씀이없으시고부친곁에만계셨다

혼인을하고왜사람은않된다고하셨으나누이가내내설득하였다

나는왜나라에가본적은없다

어릴적은왜는천시해왔다

그저섬이라무엇을먹고사나궁금했다

다른관심은없었다

처자는한양에서만났다

누이가아는처자였다

한양에오래있어도믿을사람이없으니누이를따랐다

누이가오랫동안알고있던처자니더따질것이있겠는가?

처자를다시데려올때부터내방은아이들이클때놀이방이었다

서책을놓는장에서뛰어내고는했다

이불을놓는장은말할것도없다

아이들놀이방은큰아들이혼례를하면내어줄생각이다

저녁때가되어처자와밥을함께했다

처자는웃음기가가시지않는다

나도흡족했다또드는생각이다

부친이살아생전에뭐라혼내신적이없으셨다

어릴때거상에들어가일을배웠다

거상몇군데를옮겨일을도왔다

어린나이에큰돈을치뤄주느라돈보다일이힘들었다

내처자는일본사람이다

일본을배척하는조선이니조용히조선사람으로사는것이다

속이는것이아니다

모르는척하는것이다

한양으로올라가있기로했다

처자와자식들은소를크게키우고있으니그리고누이가돌보니마음이놓인다

한양에가서중국과프랑스배가궁금했다

추측컨데중국을보고프랑스배가들어오는것같다

처자가일본사람이라도내다잊으라했으니일본에는관심을끊은지오래다

중국의사신이조선에와서프랑스인들을보려는것인지조선을두고중국으로건너가려는것인지알수가없었다

하루쉬고대장간에가봤다

분주하지않고제물건들만정리한다

주막으로돌아와주모딸에게들은얘기다

중국과프랑스가전쟁을한다는것이다

세종께서어떻게하실지모르겠지만내생각에는배여러척과사람들로무슨담판을지을수있는지이해가되지않았다

중국으로직접가도되지않는가?

중국은세계에서가장큰대국이다

내생각은이렇게밖에생각이들지않았다

조선의태평성대에누가된다면내쫓을일이다

주막으로돌아와막걸리를들었다

내일봇짐꾼들과순창처자에게가볼생각이다

웃음을찾은처자가생각에든다

아이들도여덟이니든든함은말로표현이않된다

들어오는봇짐꾼들과술과안주를더받았다

저녁이늦어막걸리로끼니를대신하고방으로들어갔다

해가뜨자마자봇짐을메고봇짐꾼들과출발했다

문경에서잠시쉬고순창까지한번에갔다

집에들어서니큰아들이맞는다

애미를물으니저녁상을본다고한다

상을들여밥을먹고같이잠자리에들었다

내겨드랑이까지얼굴을묻는처자가고마웠다

"아이들이건강하고말이곱습니다"

"그런가?"

"잘되었네"

"자네마음은편안한가?"

"예"

"그럼,되었네"

"아이들에게 서책을읽히게"

"예"

"자네도곧서른일세"

"몸을강건히하시게"

"예"

"내일소사육장에나가있겠네"

"예"

어느새처자는내하체에얼굴을묻고있었다

한때쇠했던내기력도좋아졌다

풍요로운조선에사는것이행복했으나국운이조선사람으로걱정되었다

"잘지내는가"

"그럼요"

"소들이잘크고다자라면 한양으로바로보내고있습니다"

"고맙네"

"내가봄세"

"잘들어가십시요"

"알았네"

마을로가는길에약방에잠깐들렸다

처자약을좀짓었다

한첩들고마을에서집으로들어섰다